

한국산 Pleuronectidae(가자미과) 어류의 1미기록종 *Pleuronectes proboscideus*

이충렬 · 김은영
군산대학교 생물학과

서론

가자미과 어류 Pleuronectidae는 우리나라에 13속 24종 세계에 39속 93종으로 알려져 있다. 2003년 8~9월 경상북도 울진군 원자력발전소에서 채집한 어종을 동정한 결과 우리나라에 보고 되지 않은 가자미과 어류 1종인 *Pleuronectes proboscideus*으로 분류되어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.

재료 및 방법

2003년 9월에 울진원자력발전소 해수유입구에 쳐놓은 그물로 표본을 채집한 후 10%포르말린에 고정시켜 동정하였다. 종의 동정은 Masuda *et al.*(1988), Nakabo(2002) 문헌을 참고 하였다.

결과 및 요약

2003년 9월에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부구리 원전 입구에 쳐놓은 그물에 걸린 어종 중 가자미과(Pleuronectidae)에 해당되는 표본 1개체가 채집되었다. 본 표본은 체장이 222.0mm이고 체폭이 넓은 타원형이며 주둥이 끝이 위로 향해 돌출되어 있으며 눈 위의 등쪽 외곽선은 오목하였다. 아가미 개구지점에서 출발한 측선은 가슴지느러미 위에서 둥글게 등쪽으로 오르다가 몸의 중앙부로 내려와 수평으로 진행되어 그 끝은 미병 중앙부를 통과하였다. 측선 유공비늘 수는 78개이고 뺨에 둥근 비늘이 성글게 나 있다. 한편 등지느러미 기조수는 51개이고 뒷지느러미 기조수는 67개이다. 두장은 체장의 27.3%, 체고는 45.5%, 항문전 길이는 26.1%, 미병장은 3.9%였고, 안경은 두장의 20.7%, 양안간격은 4.8%, 주둥이 길이는 20.7%였다. 체색은 대부분 어두운 갈색이었다. 각 지느러미 색깔은 체색과 비슷하였다. 등지느러미는 눈의 중앙 상부에서 출발하였고, 뒷지느러미 끝과 같은 위치에서 끝난다. 꼬리지느러미 끝은 둥글고 각 지느러미에는 특별한 무늬는 없었으나 약간 어두운 소형 반점이 있었다. 눈 뒤에서부터 측선이 시작되는

사이인 아가미 뚜껑 상단에는 소형 골질돌기가 나있었다. 우리나라의 동해안에 서 채집된 본 어종은 *Pleuronectes proboscideus*와 잘 일치하였으며 그 주둥이의 특징을 살려 '긴코가자미'라 명명한다.

참고문헌

- Masuda, H., K. Amaoka, C. Araga, T. Uyeno and T. Yoshino. 1988. The fishes of the Japanese Archipelago. Tokyo Univ. Press. i-xxii+1-437, pls. 1-370.
- Nakabo, T. 2002. Fishs of Janpan with pictorial keys to the species second edition. Tokal Univ. Tokyo. 1748 pp.
- Masuda, H., K. Amaoka, C. Araga, T. Uyeno and T. Yoshino. 1988. The